

관계신념 척도(Relationship Beliefs Scal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전영민

박영숙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이화여대 의과대학

본 연구는 관계신념 척도(Relationship Beliefs Scale:RBS)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RBS는 친밀한 애정관계(특히 부부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신념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전체 피험자 230명(남성=66, 여성=164; 기혼자=53%)을 대상으로 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및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원래 척도의 요인구조와 상당히 비슷한 4개 신념요인 구조를 보였다. 추출된 신념요인들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55에서 .90 사이로서 비교적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관계신념 척도의 수렴적 및 변별적 타당도를 위해 사랑태도 측정치 및 관계 만족도와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랑태도 하위척도 측정치와는 예측했던 유형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고, 관계 만족도 측정치와도 예측했던 것과 같이 비교적 높지 않은 상관을 보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문제를 논의하였다.

사람은 항상 친밀한 관계와 관련된 인지적 구조 즉, 태도, 기대, 假定, 표준(standards) 혹은 신념 등을 포함하는 지식 구조(knowledge structures)를 가지고 친밀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지식구조는 개인이 대인관계와 관련된 사건들을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그리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개인이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內的 表象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의 이론적 주장들에서는 그러한 안정적 지식구조를 사회적 인지와 친밀 관계 간의 관계성

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고 있다(예를 들어, Fletcher & Fincham, 1991a; Miller & Read, 1991). 또한 부부치료자들은 관계 디스트레스(distress)와 관련된 인지적 요소로서 신념 혹은 표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Epstein, 1982; Epstein, Baucom, & Rankin, 1993; Hahlweg & Markman, 1988; Jacobson, Follette, & McDonald, 1982; Jacobson, Follette, & Pagel, 1986). 그러나 표준이나 신념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연구에 사

용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되고 적절한 개인차 척도의 개발은 활발하지 못하였고(Fletcher & Fincham, 1991b), 이러한 실정은 국내에서도 다를 바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밀한 이성관계 특히 부부관계의 성공요인에 관한 일반적인 신념을 측정하는 척도(즉 Relationship Beliefs Scale: 이하 RBS라 부름: Fletcher & Kininmonth, 1992)를 우리말로 번안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연구하고자 했다.

친밀 관계에 관한 신념을 체계적으로 측정한 대표적인 연구자는 Eidelson과 Epstein(1982)이었다. 이들은 친밀한 관계의 특성에 관해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5가지 비현실적 신념을 평가하기 위해 관계 신념 질문지(Relationship Belief Inventory: RBI)를 개발하였다. (1) 의견불일치는 관계를 파괴한다. (2)부부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읽어들 수 있어야만 한다. (3)자신들이나 자신들의 관계 본질은 결코 변화될 수 없다. (4)부부는 서로에게 성적으로 완벽해야만 한다. (5)남녀간 갈등의 원인은 성격 및 욕구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성차 때문이다. RBI가 측정하는 신념 유형들은 부부 디스트레스와 높은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인지행동 치료에 있어서 표적 행동을 확인하고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준거 평가치로서 RBI를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예를 들어, Fincham & Bradbury, 1987; Huber & Milstein, 1985).

그러나 90년대 이후 관계 신념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면서 RBI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Fletcher, & Kininmonth, 1992). 첫째, RBI는 친밀한 관계 신념의 단일 범주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나 태도와 같은 정동적 구성개념, 기대, 의도, 귀인 등이 모두 섞여 있는 이질적 범주들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반응자 자신의 친밀 관계에 적용되는 신념 문항과 일반적인 친밀 관계에 적용되는 신념 문항들이 섞여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이론에서는 위의 두 가지 신념 즉, 일반적인 관계신념과 특정한 관계신념은 이론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이 있다(Fletcher et al., 1991b).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성(sex)이 친밀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믿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현재 친밀 관계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을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RBI는 관계 신념의 비현실적이거나 역기능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임상적 관찰에 의하면 부부 디스트레스는 각 배우자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지 서로의 신념이 양립 불가능할 때 발생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Baucom & Epstein, 1990). 따라서 친밀 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신념들을 더욱 포괄적으로 측정해줄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RBI가 지닌 이러한 문제점에 근거해서 Fletcher 등(1992)은 RBS를 개발하였다. RBS는 친밀한 애정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신념 분야들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부부관계 뿐만 아니라 미혼의 이성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척도의 유용성을 극대화시켰다. RBS의 마지막 특징은 특정 관계에 관한 특정 신념 즉, 반응자 자신의 관계에 특정적인 신념 보다는 일반적인 관계 신념들을 측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RBS는 관계 신념의 가장 중요한 부류 즉, 친밀 관계의 성공 혹은 행복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들을 측정한다. 이러한 신념들은 다양한 내용 영역(예를 들어, 대화, 성, 친구)이 친밀한 성적 관계의 결과 즉, 행복, 이혼, 갈등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반화된 개념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 신념들은 관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적 신념(causal beliefs)의 속성을 지닌다.

그들은 RBS를 개발하기 위해 151명의 피험자로부터 미혼의 이성관계나 혹은 부부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믿는지에 대한 자기보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자료들을 3명의 독립적인 연구 보조자로 하여금 문항 내용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시킨 후, 토론 과정을 거쳐서 신념 범주를 18개(각 신념범주마다 4개 문항)로 최종 결정하였다. 다시 각 신념에 대한 내

적일관성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통해 18개 신념마다 3개씩의 문항을 추출하여 예비 관계신념 척도를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예비 관계신념 척도를 981명의 대학생들에게 실시하여 신뢰도 검증 및 요인분석을 하였고, 최종 추출된 요인은 4개였다: (1) 친밀성(Intimacy: 존중, 대화, 타협 등과 같이 대인간 태도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신념들), (2)외적 요소(External factors: 돈, 자식과 같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들), (3)열정(Passion: 성 및 활력과 같은 열정 요소들), (4)개성(Individuality: 독립성 및 형평성 신념이 포함됨). 이 4개 요인의 Cronbach α 계수는 모두 .51 이상이었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도 .64 이상이었다. RBS의 4개 신념요인은 사회 바람직성 측정치 및 관계만족도와는 독립적이고, 사랑태도 척도(Hendrick & Hendrick, 1986)의 측정치와는 수렴적 상관을 보이는 매우 안정된 척도임이 입증되었다. 특히 RBS로 측정되는 관계신념들은 관계 행동과 관계 만족도를 매개하는 요인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측면은 일반적 관계신념을 측정하는 RBS가 이질적인 신념요소들을 측정하는 RBI와는 변별되는 척도임을 시사한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부부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교육학, 사회사업학, 가정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결혼 만족도나 결혼적용과 관련된 연구들에 편중되어 있다(이민식, 김중술 1995). 그 중에서 측정도구와 관련된 것은 이인수(1986)의 석사 논문과 이민식과 김중술(1995)의 연구뿐이며, 더구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을 측정하는 도구는 전혀 개발되어 있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친밀한 관계(특히 부부관계)의 성공 및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관계 신념을 임상적으로나 이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측정도구의 개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임상 장면에서 부부문제의 인지적 측면을 중요하게 다룬다고 할 때, 전술한 RBS를 우리말로 번안하여 그 신

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작업이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방 법

피험자

본 연구의 피험자들은 몇 명의 연구 도움자들을 통해 대학교, 일반 기업체, 시립 정신병원, 일반 가정 등에서 임의로 표집한 우연표본들(accidental samples)이다. 관계신념 척도(RBS), 사랑태도 척도는 230명의 서울 거주 성인 남녀에게 실시했으며, 한국판 부부적용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DAS, 이민식, 김중술 1995)는 230명 중 자원한 61명의 피험자에게만 실시했다. 피험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측정도구

한국판 관계신념 척도(Relationship Beliefs Scale: RBS):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척도는 Fletcher 등(1992)이 개발한 Relationship Beliefs Scale(RBS)을 우리말로 번안한 한국판 관계신념 척도이다. 한국판 RBS는 본 연구자가 1차 번역 본을 완성한 후,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박사과정에 있는 2인과의 토론과정을 통해 완성하였다. 토론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한 점은 동서문화권의 차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항에 대한 거부감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즉, "반드시"라는 절대 용어의 사용을 최대한 피했고, 성(sex)과 관련된 문항들은 좀 부드럽게 표현하였다. 이 척도는 18개 신념 범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신념 범주마다 3개 문항씩 포함되어 있어 총 54개 문항이며, 각 문항은 1(이 신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에서 6(이 신념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다)까지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RBS에서 산출되는 점수는 18개 신념 하위척도(혹은 범주) 점수, 그리고 요인분석

표 1. 피험자의 특성

특성	RBS, LAS		특성	DAS	
	실시집단	DAS 실시집단		실시집단	DAS 실시집단
남성(명)	66	39	평균교제기간(개월)	73.0(69.6)	70.7(73.9)
여성(명)	164	22	평균자녀 수	1.5(0.9)	1.3(0.9)
평균연령	30.0(6.7)	30.0(6.3)	평균 교육수준(년)	13.7(1.95)	15.13(2.0)
관계상태(%)			학력(%)		
친구관계	13.0	11.5	대졸이상	36.1	72.1
연인관계	27.0	26.2	전문대졸	12.6	0
부부관계	52.6	54.1	고졸	49.6	26.2
별거	.9	3.3	중졸이하	.4	0
누락값	6.5	4.9	누락값	1.3	1.6

() 안은 표준편차

과정을 통해 추출된 4개 신념요인 즉, 친밀성(Intimacy), 외적 요소(External factors), 열정(Passion), 개성(Individuality) 요인의 점수이다. 18개 신념 하위척도별 문항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사랑태도 척도(Love Attitude Scale: LAS): 전영민과 연미영(1996)이 Hendrick과 Hendrick(1986)의 Love Attitude Scale(LAS)를 번안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한 사랑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랑태도 척도의 요인구조는 그들의 연구와 차이가 없는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척도의 하위척도에는 6개가 있다: 에로스 사랑(Eros), 놀이 사랑(Ludus), 우정적 사랑(Storge), 합리적 사랑(Pragma), 폭풍적 사랑(Mania), 헌신적 사랑(Agape)이다. Fletcher 등(1992)은 LAS로 측정되는 몇몇 구성개념들이 RBS와 수렴적 상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즉, "합리적 사랑태도"는 경제력 및 중요한 타인과 같은 실리적 고려사항들에 초점을 맞추는 "외적요소" 신념요인과 상관될 것이다. 그리고 "놀이 사랑"과 "에로스 사랑"(둘 모두 육체적이거나 성적인 요소와 관련됨)은 "열정" 신념요인과 정적으로 연합될 것이며, "우정적 사랑태도"는 "열정" 신념요인과 부적으로 연합될 것이다(우정적 사랑의 非性的 性向 때문). 그리고 헌신적 사랑태도는 "친밀성" 신념요인과 정적으로 연합될 것이다(두 개념 모두 지지와 수용을 반영하기 때문).

한국판 부부적응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DAS): 이 척도는 Spanier(1976)가 제작한 Dyadic Adjustment Scale을 이민식과 김중술(1995)이 번안하여 표준화 예비연구를 한 것으로서 4개의 하위척도(즉 의견일치도, 응집도, 만족도, 애정표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척도들 중 의견일치도, 응집도, 애정표현 등은 행동의 빈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만족도" 하위척도 점수만을 관계만족도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미혼의 연인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척도이며, 관계만족도에 대한 측정치로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예들 들어, Heavey, Layne, & Christensen, 1993; Heavey, Christensen, & Malamuth, 1995).

Fletcher 등(1992)은 RBI에는 관계 만족도와 강력하게 관련되는 태도, 기대 및 행동에 관한 문항들이 섞여 있다는 비판을 하면서, RBS는 RBI와는 구별되는 순수한 관계신념만을 측정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RBS의 신념들은 관계만족도와 강한 상관을 보이진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RBS 개발 과정에서 도출된 상관 연구결과도 이러한 예측과 일치하였다. 즉, RBS의 신념요인들과 관계만족도는 적당한(moderate) 상관을 보였다.

분석방법

결 과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sion 6.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로서 내적일관성(즉,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으며,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RBS가 RBI와는 구별되는 변별적 타당도를 지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관계만족도와 의 상관을 산출하였으며,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사랑 태도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념요인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및 요인간 상관, 그리고 18개 하위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총점 상관 각 신념 하위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체 평균은 10.95(性)점에서 14.29(존중)점의 범위를 보였다. 표준편차는 모두 비슷하고 적당한 변산을 보였다(2.5에서 3.7). 또한 각 신념 하위척도(18개)의 문항-총점 상관도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특히 평가되는 신념의 문항들이 해당 신념의 비교적 다면적인 속성을

표 2. 신념 요인의 내적일관성 신뢰도(Cronbach α) 및 18개 하위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문항-총점 상관

요인명 및 하위척도	평균	표준편차	문항-총점 상관	내적일관성 신뢰도
친밀성(Intimacy)				.90(.87)
신뢰(trust)	13.17(15.2)	2.87(2.6)	.5, .4, .5(.4, .6, .6)	
존중(respect)	14.29(14.2)	2.52(2.3)	.3, .6, .5(.3, .4, .4)	
대화(communication)	13.03(14.2)	2.60(2.4)	.3, .4, .4(.2, .5, .4)	
대처(coping)	13.80(13.1)	2.55(2.5)	.2, .5, .5(.2, .5, .4)	
지지(support)	13.67(13.8)	2.65(2.3)	.4, .5, .6(.2, .3, .2)	
수용(acceptance)	12.65(13.2)	2.70(2.7)	.4, .4, .4(.4, .4, .3)	
사랑(love)	13.49(11.4)	2.58(2.8)	.3, .4, .4(.2, .3, .3)	
우정(friendship)	13.89(15.0)	2.77(2.7)	.5, .6, .3(.6, .6, .4)	
타협(compromise)	12.80(13.5)	2.68(2.5)	.3, .4, .5(.4, .4, .3)	
외적요소(External factors)				.73(.78)
개인적 안정감(personal security)	13.30(12.0)	2.88(2.8)	.4, .3, .4(.3, .2, .4)	
중요한 타인(importance others)	11.20(9.6)	3.03(2.5)	.2, .5, .4(.4, .4, .4)	
경제력(finance)	11.86(7.6)	3.09(2.9)	.5, .7, .6(.5, .6, .6)	
공유성(commonality)	12.50(11.1)	2.81(2.5)	.3, .4, .4(.3, .2, .2)	
자식(children)	11.40(6.1)	3.70(3.0)	.4, .7, .7(.5, .5, .6)	
열정(Passion)				.66(.74)
성(sex)	10.95(10.1)	3.12(3.4)	.5, .6, .6(.6, .7, .6)	
활력(vitality)	12.07(12.9)	3.02(2.9)	.4, .5, .5(.4, .5, .4)	
개성(Individuality)				.55(.51)
독립성(independence)	12.06(14.0)	3.13(2.53)	.4, .5, .4(.2, .3, .3)	
형평성(equity)	12.20(13.9)	2.84(2.71)	.4, .4, .4(.3, .3, .3)	

() 안은 Fletcher와 Kininmonth(1992)의 결과임. 평균과 표준편차는 18개 신념 하위척도에 포함되는 각 3개 문항의 합으로부터 도출한 것이고, 문항-총점 상관은 부록에 있는 문항순서로 제시하였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상관이라 할 수 있겠다. 18개 신념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52에서 .74까지의 범위(평균 $\alpha = .62$)로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4개 신념요인 점수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Fletcher 등(1992)이 산출한 자료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다(표2).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신념요인 점수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그들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써 한국판 RBS 신념요인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신념 요인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40에서 .60, $p < .05$)이 있었는데, 이는 관계성공에 관한 신념들은 서로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표3). 특히, 친밀성 신념의 강도와 외적요소(.61) 및 외적요소와 열정(.63) 사이에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표 3. 관계신념 요인간 상관

	1	2	3	4
1. 친밀성	-	.61 (.40)	.54 (.31)	.50 (.31)
2. 외적요소		-	.63 (.39)	.49 (.05)
3. 열정			-	.40 (.23)
4. 개성				-

* $p < .001$

()안은 Fletcher와 Kininmonth(1992)의 결과임.

관계상태(미혼 · 기혼)에 따른 신념강도의 차이

본래 피험자 특성에 따른 신념요인 점수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2요인(성별 × 관계상태) 변량분석을 포함시킬 계획이었으나 남녀간 표집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이와같은 분석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비교적 하위집단의 크기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되는 관계상태(미혼/기혼)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4개 신념요인 점수와 18개 하위척도 점수에 있어서의 차이를 t검증을 통해 분석하였고(표 4),

또한 교제기간과 각 신념요인 점수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교제기간은 외적요소 요인과 .24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지만 비교적 큰 표집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관의 크기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개 신념요인에 대한 t검증에서는 외적요소 신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다른 3개 신념에 있어서는 미혼관계와 기혼관계 사이에 어떠한 차이도 없었다. 18개 신념 하위척도별로 분석한 결과 5개 하위척도(지지, 수용, 개인적 안정감, 경제력, 자식)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 13개 하위척도에서는 관계상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관계신념척도는 전체적으로 관계상태(미혼 · 기혼)나 교제기간에 따른 차이를 크게 보이지 않는 안정된 척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계신념 척도의 수렴적 및 변별적 타당도

관계신념 요인과 사랑태도 간의 상관은 대체로 예측했던 바와 같았다(표 5). 즉, 친밀성 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강한 신념을 지닌 피험자들은 헌신적 사랑태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외적요소와 개성 요인의 중요성에 대해 보다 강한 신념을 지닌 피험자들은 사랑을 합리적이고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열정 신념에 대한 결과는 Fletcher 등(1992)의 결과 및 예측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열정 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강한 신념을 지닌 피험자들은 에로스 사랑을 하는 경향은 다소 있었으나($r = .16, p < .05$) 놀이 사랑태도는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폭풍적 사랑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가장 높았다($r = .25, p < .001$). 이와 같은 결과는 놀라운 것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폭풍적 사랑은 주로 청소년기에 보이는 사랑의 열병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신념 요인과 관계만족도 사이의 상관도 예측했던 바와 같이 적당한(moderate) 수준이었다. 즉 관계만족도는 친밀성 신념요인과는 관련

표 4. 관계상태에 따른 4개 신념요인 점수 및 18개 하위척도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미혼관계 (n=107)	기혼관계 (n=123)	t (df=228)
4개 신념요인			
친밀성 신념	119.2(16.7)	122.0(18.6)	1.18
외적요소 신념	58.0(10.1)	62.2(11.2)	2.94 ^{***}
열정 신념	22.9(4.8)	23.0(5.6)	.07
개성 신념	24.2(4.8)	24.2(5.0)	.09
18개 하위척도			
신뢰	13.0(2.5)	13.2(3.1)	.52
존중	14.3(2.5)	14.2(2.5)	.74
대화	12.8(2.3)	13.1(2.7)	.75
대처	13.6(2.5)	13.8(2.5)	.63
지지	13.2(2.5)	14.0(2.6)	2.17 [*]
수용	12.1(2.7)	13.0(2.5)	2.67 ^{***}
사랑	13.3(2.4)	13.5(2.7)	.59
우정	13.8(2.8)	13.9(2.7)	.14
타협	12.6(2.6)	12.9(2.7)	.80
개인적 안정감	12.6(2.6)	13.8(2.9)	3.17 ^{***}
중요한 타인	11.2(2.8)	11.1(3.1)	.44
경제력	11.3(3.0)	12.2(3.0)	2.16 [*]
공유성	12.3(2.5)	12.6(3.0)	.97
자식	10.3(3.7)	12.3(3.4)	4.09 ^{***}
성	10.8(2.8)	11.0(3.3)	.46
활력	12.1(2.7)	12.0(3.2)	.35
독립성	12.0(2.9)	12.0(3.3)	.15
형평성	12.1(2.8)	12.2(2.8)	.32

* p<.05 ** p<.01

() 안은 표준편차

표 5. 관계신념 척도의 4개 신념요인과의 수렴적 및 변별적 상관

측정치	신념요인			
	친밀성	외적요소	열정	개성
관계만족도(61명)	-.00	-.27*	-.32*	-.30*
사랑태도(228명)				
에로스 사랑(Eros)	.21**	.08	.16*	-.09
놀이 사랑(Ludus)	-.20**	.03	.02	.14*
우정 사랑(Storge)	.26***	.10	.18**	.21**
합리적 사랑(Pragma)	.21**	.27***		.23***
폭풍적 사랑(Mania)	.22**	.14	.25***	.07
헌신적 사랑(Agape)	.33***	.07	.17**	-.08

*p<.05, **p<.01, ***p<.001.

성이 없었고 외적요소($r=-.27, p<.05$), 열정 신념 요인($r=-.32, p<.05$) 및 개성 신념요인($r=-.30, p<.05$)과는 높지 않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다시 말해 관계의 성공에 있어서 외적요소, 열정 및 개성 요인의 중요성에 대해 강한 신념을 지닌 피험자들일수록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역기능적 신념을 측정하는 RBI의 모든 하위척도가 관계만족도와 $-.18$ 에서 $-.57$ 의 높은 상관을 보였던 결과(Eidelson et al., 1982)와 비교한다면, 한국판 RBS가 RBI와는 변별되는 척도임을 알 수 있다.

요인분석

한국판 RBS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54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방식은 주성분 분석법을 사용하였고,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직교회전을 시켰다. eigenvalue가 2 이상인 요인은 4개였으며 전체 변량의 39.4%를 설명하였고, 1 이상인 요인은 16개였으며 전체 변량의 68.2%를 설명하고 있다. 16개 요인의 부하값에 대해 살펴본 결과, 요인들 중 10개 요인은 10개 신념 하위척도(즉 성, 존중, 우정, 신뢰, 자식,

표 6. 요인분석 결과

신념요인(Fletcher et al., 1992) 및 신념 하위척도	해당 신념 하위척도의				
	내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1. 친밀성 요인					
신뢰(.75)	상호신뢰	.74			
존중(.71)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	.70			
대화(.69)	자유롭게 얘기하는 능력	.70			
대처(.67)	갈등을 건설적으로 다루기	.68			
지지(.66)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	.72			
수용(.63)	서로의 결점을 수용하는 것	.67			
사랑(.62)	서로간의 표현된 사랑	.72			
우정(.59)	좋은 연인은 물론 좋은 친구도 됨	.68			
타협(.49)	양보하는 능력	.66			
2. 외적요소 요인					
개인적 안정감(.71)	서로 사랑하는 가문 출신의 파트너	.53	.34		
중요한 타인(.65)	서로의 친구(친척)와 잘 지내는 것		.21	.63	
경제력(.65)	경제적 안정		.47		
공유성(.56)	유사한 관심	.66	.32		
자식(.54)	자식은 관계를 공고히 만들		.80		
3. 열정 요인					
성(.78)	좋은 성관계			.75	
활력(.64)	즐겁고, 낭만적이고, 웃음이 가득함			.68	
4. 개성 요인					
독립성(.72)	서로의 개인적 시간을 존중				.83
형평성(.61)	가정생활의 의무를 평등하게 나눔				.47
아이겐값		7.59	.85	1.64	1.10
설명변량		42.2	4.7	9.1	6.1

()안은 Fletcher 등(1992)의 연구에서 산출된 요인 부하값이며, 요인번호는 그들의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요인순서에 맞추었음.

경제력, 중요한 타인, 독립성, 형평성, 개인적 안정감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개 요인은 여러 신념 하위척도의 문항들이 섞여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많은 문항들이 보다 고등(higher-order)의 신념 구성개념들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등 신념 요인구조의 존재와 설명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18개 신념 하위척도를 대상으로 한 2차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eigenvalue가 1 이상인 요인은 3개였으나, scree 검사결과 4개가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요인 수를 4개로 제한한 후 3차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추출된 4개의 요인의 eigenvalue는 각각 7.60, .85, 1.64, 1.10였으며 전체 변량의 62.1%를 설명하였다.

표 6을 보면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추출된 4개 요인구조는 Fletcher 등(1992)이 추출하여 척도 제작의 기초로 삼았던 요인구조와 대체로 비슷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즉 요인1, 요인3 및 요인4는 그들의 요인구조와 동일하였다. 다만 그들의 요인구조에서 요인2(외적요소)로 묶였던 “개인적 안정감”과 “공유성” 변인이 본 연구에서는 요인1(친밀성)로 묶였고, “중요한 타인” 변인은 본 연구에서 요인3(열정)으로 묶였다. 그런데 “개인적 안정감” 변인과 “공유성” 변인은 요인2(외적 요소)에도 비교적 높은 부하값(각각 .34와 .32)을 보이고 있다. “공유성” 변인은 서로의 취미를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친밀성 요인(요인1)으로 묶인 것으로 판단되며, “중요한 타인” 변인은 서로의 친구와 잘 지내는 것에 대한 신념을 반영하기 때문에 열정요인(요인3)으로 묶인 것으로 생각된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판 RBS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판 RBS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지지하고 있다. 먼저 18개 신념범주들은 적절한 내

적일관성 신뢰도를 보였고, 18개 신념범주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Fletcher 등(1992)이 도출한 요인구조와 상당히 유사한 요인구조를 보였다. 즉, 첫 번째 요인(친밀성), 세 번째 요인(열정) 및 네 번째 요인(개성)은 동일하였고, 다만 그들의 연구에서 두 번째 요인(외적요소)에 묶였던 개인적 안정감 신념범주와 공유성 신념범주가 첫 번째 요인(친밀성)으로 묶였고, 역시 두 번째 요인(외적 요소)으로 묶였던 중요한 타인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범주는 세 번째 요인(활력)으로 묶였다. 그러나 그들은 981명이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요인분석이었고 또한, 981명의 학생 피험자들 중 110명(11.2%)만이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 관계에 있는 피험자들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피험자들(230명)을 사용하였고 부부 관계에 있는 피험자들도 53.5%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에 사용된 한국판 RBS의 구성타당도는 만족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판 RBS의 첫 번째 요인(친밀성)은 대인관계 태도 및 상호작용에 관한 신념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친밀성 발달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였다. 두 번째 요인(외적 요소)에는 자식이나 경제력과 같이 외적인 요인의 중요성과 관련된 신념범주들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 요인(열정)은 성 및 활력에 관한 신념이 결합된 형태로써 열정의 중요성에 관한 신념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인(개성)은 독립성 및 형평성 신념이 결합된 신념이었다. 연구자들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18개의 개별적인 신념 점수를 사용하거나 혹은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4개 신념요인 점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신념요인에 대한 수렴적 및 변별적 타당도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신념요인들은 관계만족도와 높지 않은 수준의 적당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역기능적 신념을 측정하는 RBI척도가 정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태도, 기대, 행동 등도 함께 측정하기 때문에 관계만족도와 높은 상관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는 RBS의 변별적 타당도에 대한 중요한 증거

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RBS와 사랑태도간의 상관 유형도 기대했던 것과 유사하였다.

이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와 관련된 문제점 및 보완점에 대해 논의하겠다. 먼저 18개 신념 하위척도의 문항-총점 상관 및 4개 신념요인의 내적일관성 신뢰도가 Fletcher 등(1992)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다 안정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Fletcher 등(1992)이 3주 간격으로 측정하여 산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4에서 .89로서 높은 상관을 보였다.

척도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계상태(미혼/기혼)에 따른 4개 신념요인 점수의 차를 검증한 결과, 외적요소 신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다른 3개 신념에 있어서는 미혼관계와 기혼관계 사이에 어떠한 차이도 없었다. 비록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지 못했지만 관계상태에 따른 4개 신념요인 점수의 변산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남·녀의 균형된 표집을 통해 보다 설득력 있는 신뢰도 연구가 요구된다.

RBI 척도와외 변별적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판 RBS와 한국판 DAS의 관계만족도 하위척도 사이의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RBI는 순수한 관계 신념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들과 관련되는 태도, 기대 및 행동 등에 관한 구성개념들까지 혼합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관계만족도와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비판을 받았다(Fletcher et al., 1992). 예측했던 바와 같이 한국판 RBS의 4개 신념요인들 중, 친밀성 신념요인은 관계만족도와 상관이 없었고, 나머지 3개 신념요인과는 높지 않은 적당한 부적 상관(-.27에서 -.32)을 보였다. RBI의 5개 하위척도 모두가 -.18에서 -.57의 높은 상관을 보였던 결과(Eidelson et al., 1982)와 비교한다면 본 연구에서 산출된 상관은 높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판 RBS는 RBI와는 달리 순수한 단일의 관계 신념만을 측정하는 척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RBI가 관계만족에 역기능적인 관계신념(예를 들어, “의견 불일치는 관계를 파괴한다”, “부부는 서로에게 성적으로 완벽해야만 한다” 등)를 측정하는 반면에, RBS는 관계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관계신념을 측정하는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판 RBS의 각 요인들 역시 관계만족도와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능적인 관계신념도 지나치게 강할 때는 관계적응에 역기능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광범위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관계적응에 있어서 관계신념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인분석을 통해서 한국판 RBS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요인구조가 이전의 연구(Fletcher et al., 1992)에서 도출된 구조와 상당히 유사했다. “개인적 안정감”에 대한 신념범주는 요인1(친밀성 요인)과 요인2(외적요소 요인) 둘 다에 높은 부하값(각각 .53, .34)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문항에 대한 번역상의 오류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Fletcher 등(1992)의 연구에서 요인2(외적요소 요인)로 묶였던 “중요한 타인” 신념과 “공유성” 신념범주가 본 연구에서는 각각 요인1(친밀성 요인)과 요인3(열정 요인)으로 묶였다. 이 두 신념은 해당 요인에 대한 부하가 큰 것(각각 .63, .66)으로 볼 때 문항 번역상의 오류가 보다는 문화적 차이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RBS와 수렴적 상관을 보였던 사랑태도에 관한 연구(Hendrick et al., 1986)에서도 동양인과 서양인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만약 “중요한 타인” 신념과 “공유성” 신념에 있어서의 차이가 실제적인 문화적 차이를 반영한다면 두 신념을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구조에 따라 묶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을 무선적으로 표집하거나 체계적으로 표집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남성표집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여성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한 한국판 RBS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표본추출 방법, 표집의 편향, 문항 번역상의 문제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어느정도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집단을 대상으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이 척도를 부부관계와 같은 친밀 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인 관계신념의 역할에 대한 연구 및 임상장면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먼저 한국판 RBS를 사용할 수 있는 향후 연구문제는 관계신념이 형성되어 유지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관계신념들은 영화, 책, TV와 같은 다양한 정보매체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그러나 친밀 관계에 관한 신념 및 기대는 친구들의 친밀 관계에 대한 관찰과 자신의 개인적 친밀 관계 경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연구문제는 관계신념들이 친밀 관계 내에서의 행동과 정보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이다. Fletcher 등(1992)은 관계신념은 해당 신념과 관련된 행동의 정보처리를 선택적으로 촉발시킬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즉, 특정 관계신념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에 비해 해당 신념과 관련된 행동을 처음에는 빠르고 자동적으로 처리할 것이지만 어떤 조건에서는 더욱 통제적이고 깊이 있게 처리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관심을 끄는 연구문제는 친밀 관계에서 인과적 귀인과 관계신념간의 관계성에 관한 것이다. 특정 신념요인(예를 들어, 외적 요소)의 중요성에 대해 강한 신념을 지닌 사람은 그러한 요인의 존재 유무가 자신들의 관계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이유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향후 이와 같은 연구문제들을 검증하는 데 한국판 관계신념 척도가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이민석, 김중술(1995). 부부관계 적응척도(Dyadic Adjustment Scale)의 표준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 '95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91-299.
- 이인수(1986). 결혼만족도 척도의 타당화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영민, 연미영(1996). 사랑태도 척도(Love Attitudes Scale)의 타당화 연구. *性格 및 個人差 研究*, 第五卷, 90-102.
- Baucom, D.H., & Epstein, N.(1990). The role of cognitive variables in the assessment and treatment of marital discord. *Progress in Behavior Modification*, 24, 223-251.
- Eidelson, R.J., & Epstein, N.(1982). Cognition and relationship maladjustment: Development of a measure of dysfunctional relationship belief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 715-720.
- Epstein, N, Baucom, D.H., & Rankin, L.A.(1993). Treatment of marital conflict: A cognitive-behavioral approach. *Clinical Psychology Review*, 13, 45-57.
- Epstein, N.(1982). Cognitive therapy with couple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0, 1, 5-16.
- Epstein, N., Pretzer, J.L., & Fleming, B.(1987). The role of cognitive appraisal in self-reports of marital communication. *Behavior Therapy*, 18, 51-69.
- Fincham, F.D., & Bradbury, T.N.(1987). The impact of attributions in marriage: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510-517.
- Fletcher, G.J.O., & Fincham, F.D.(1991a). Attribution processes in close relationships. In G.J.O. Fletcher & F.D. Fincham(Eds.), *Cognition in close relationships*(pp.7-35). Hillsdale, NJ: Erlbaum.
- Fletcher, G.J.O., & Fincham, F.D.(1991b). *Cognition in close relationships*. Hillsdale, NJ: Erlbaum.
- 이민석, 김중술(1995). 부부관계 적응척도(Dyadic

- Fletcher, G.J.O., & Kininmonth, L.A.(1992). Measuring Relationship Beliefs: An Individual Differences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6, 371-397.
- Hahlweg, K., & Markman, H.J.(1988). Effectiveness of behavioral marital therapy: Empirical status of behavioral techniques in preventing and alleviating marital distres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3, 440-447.
- Heavey, C.L., Christensen, A., & Malamuth, N.M.(1995). The longitudinal impact demand and withdrawal during marital conflic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 5, 797-801.
- Heavey, C.L., Layne, C., & Christensen, A.(1993). Gender and conflict structure in marital interactio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1, 16-27.
- Hendrick, C., & Hendrick, S.(1986). A theory and a method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392-402.
- Huber, C. H., & Milstein, B.(1985). Cognitive restructuring and a collaborative set in couples work.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3, 2, 17-27.
- Jacobson, N.S., Follette, W.C., & McDonald, D.W.(1982). Reactivity to positive and negative behavior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married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 5, 706-714.
- Jacobson, N.S., Follette, W.C., & Pagel, M.(1986). Predicting who will benefit from behavioral marital 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 518-522.
- Miller, L.C., & Read, S.J.(1991). On the coherence of mental models of person and relationships: A knowledge structure approach. In G.J.O. Fletcher & F.D. Fincham(Eds.), *Cognition in close relationships*(pp.69-99). Hillsdale, NJ: Erlbaum.
- Spanier, G.B.(1986). Assessing the strengths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5-28.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the Relationship Beliefs Scale

Young-Min Chun

Chung-Ang University

Young-Sook Park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Relationship Beliefs Scale(RBS), which was developed for measuring the beliefs concerning what makes close relationships(particularly, marital relationship) successful. RBS was administered to 230 subjects(male=66, female=164; 53% were married). A factor analysis revealed the four-factor structure which was very similar to the factor structure of the original scale. RBS has sufficient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from .55 to .90. The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RBS also were adequate: The belief factors were not strongly, or moderately, correlated with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were generally related in the predicted fashion to love attitudes. Finally, som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uses for the RBS are discussed.

부록: 관계 신념 척도
(RELATIONSHIP BELIEFS SCALE)

각 문항들은 18개 하위 척도로 분류된다.

대화(communication)

- 1. 연인이나 부부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담긴 숨은 의미(혹은 신호)를 항상 귀담아 들어야 한다.
- 19. 부부(또는 연인)는 아무리 괴롭더라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나 서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 37. 부부(또는 연인)는 둘 사이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모두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love)

- 2. 부부(또는 연인)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항상 표현해야 한다.
- 20. 친밀한 부부(또는 연인)관계는 사랑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 38. 부부(또는 연인)간의 사랑은 부부(또는 연인)관계의 성공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보증수표이다.

신뢰(trust)

- 3. 연인이나 부부간에는 조금도 거짓없이 정직해야 한다.
- 21. 최상의 부부(또는 연인)관계는 서로에게 전적으로 충실해야 이루어진다.
- 39. 친밀한 부부(또는 연인)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한 점 티끌 없이 진실해야 한다.

독립성(independence)

- 4. 연인이나 부부는 각자 서로 침범 받지 않는 개인적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 22. 부부(또는 연인)는 서로 떨어져서 보내는 시간도 가져야 한다.

- 40. 부부(또는 연인)가 아무리 서로 친밀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각자는 서로 독립적인 한 개인으로 남을 필요가 있다

지지(support)

- 5. 친밀한 부부(또는 연인)관계가 되려면 서로를 전적으로 격려하고 지지해 주어야 한다.
- 23. 최상의 부부(또는 연인)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41. 부부(또는 연인)는 능력 닿는 데까지 서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수용(acceptance)

- 6. 행복한 부부(또는 연인)는 서로를 전적으로 수용한다.
- 24. 최상의 부부(또는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생각이나 행동을 조건 없이 좋게 받아들인다.
- 42. 부부(또는 연인)가 서로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성(sex)

- 7. 최상의 애정관계는 강한 성적 매력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 25. 만족스러운 성관계 없이는 애정관계가 유지되지 못한다.
- 43. 성적(性的)으로 서로 잘 맞아야 만족스러운 애정관계가 된다.

형평성(equity)

- 8. 남자와 여자는 가정일을 평등하게 분담해야 한다.
- 26. 부부(또는 연인)가 서로 평등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깨진다.
- 44. 최상의 부부(또는 연인)관계라는 것은 자신들의 관계를 유지하는 책임을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관계이다.

타협(compromise)

- 9. 부부(또는 연인)는 자신들의 관계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해야 한다.
- 27. 부부(또는 연인)는 자신들의 관계를 위해 서로 타협(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45. 건강한 부부(또는 연인)관계란 서로의 요구사항이 비록 자신의 생각과는 맞지 않을지라도 서로 조정하고 타협하는 관계이다.

관계활력(relationship vitality)

- 10. 부부(또는 연인)관계는 웃음으로 가득 차야 한다.
- 28. 부부(또는 연인)관계는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 46. 낭만적인 연애는 애정관계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공유성(commonality)

- 11. 취미생활을 함께 하는 것은 부부(또는 연인)관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준다.
- 29. 부부(또는 연인)는 서로 동일한 신념과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 47. 연인이나 부부는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서로 더 좋아진다.

개인적 안정감(personal security)

- 12. 비슷한 가문(집안배경)의 부부(또는 연인)는 더욱 성공적인 관계를 이룰 것이다.
- 30. 좋은 부부(또는 연인)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가 내면적(또는 마음속)으로 안정을 느껴야 한다.
- 48. 부부(또는 연인) 양쪽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돕는 안정적인 가문(혹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그 관계가 더욱 성공적일 가능성이 높다.

우정(friendship)

- 13. 부부(또는 연인)는 서로의 애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고의 친구도 되어야 한다.

- 31. 당신의 배우자(또는 연인)는 당연히 최고의 친구이기도 해야 한다.
- 49. 부부(또는 연인)관계는 둘간의 매우 친밀한 우정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경제력(finance)

- 14. 경제적 궁핍은 부부(또는 연인)관계를 약화시킨다.
- 32. 친밀한 부부(또는 연인)관계는 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이루어진다.
- 50. 부부(또는 연인)관계에서 돈은 사랑만큼이나 중요하다.

자식(children)

- 15. 자식을 가짐으로서 부부는 더욱 가까워진다.
- 33. 오랜동안의 부부관계도 자식이 없으면 서로 멀어진다.
- 51. 자식을 가져야 친밀한 부부관계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중요한 타인(important others)

- 16. 서로의 친구나 가족과 잘 지내지 못하면 부부(또는 연인)관계가 위협해진다.
- 34. 공동의 친구를 두는 것은 부부(또는 연인)관계를 더욱 결속시킨다.
- 52. 당신 자신의 친구는 당신 배우자(또는 연인)의 친구이기도 해야 한다.

대처(coping)

- 17. 좋은 부부(또는 연인)관계란 어떤 어려움도 충분히 견디고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이다.
- 35. 부부(또는 연인)간의 갈등은 피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부딪쳐야 한다.
- 53. 부부(또는 연인)관계의 성공여부는 갈등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달려있다.

존중(respect)

- 18. 대부분의 성공적인 부부(또는 연인)들은 서로의

- 감정에 전적으로 관심을 기울인다.
36. 서로에 대한 존중은 부부(또는 연인)관계의 중요한 토대이다.
54. 최상의 부부(또는 연인)관계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서로에 대한 정중한 태도이다.